

# 나사렛 예수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 독특하고 비할 데 없는 인물

## 님께

오늘 나는 당신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당신도 예수님의 이름은 알고 계시겠지요. 예수님의 이름은 누구나 들어본 적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당신에게도 분명 생기게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배경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당시까지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무명의 한 여인에게서,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골 마을에서 성장하셨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겨우 열두 살의 나이에, 그 시대의 가장 뛰어난 선생들과 사상가들과도 대등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른 살이 될 때까지 목수로 일하셨고, 그 후에는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며 순회 설교자로 사역 하셨습니다.

## 그분의 짧은 생애는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필립 브룩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진군한 모든 육군, 항해한 모든 해군, 모였던 모든 의회, 통치했던 모든 왕들을 다 합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 한 사람의 생애만큼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경우는 없었습니다.”

또한, 신앙은 없었지만 뛰어난 역사가였던 윌리엄 랙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가장 덕망 높은 모본이었을 뿐 아니라, 그 덕을 실천하게 만드는 가장 오래된 동기이기도 했습니다. 단 3년의 짧은 활동 기간에 대한 단순한 기록이, 철학자들의 모든 논문과 도덕가들의 모든 훈계보다도 인간을 변화시키고 부드럽게 만드는 데 훨씬 더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면 정말 놀라운 점들이 많습니다.

- ▶ 예수님은 직접 책을 쓰신 분이 아니었지만, 그분의 삶과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에 관해 쓰인 책의 수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습니다.
- ▶ 예수님은 역사가가 아니셨지만, 그분의 탄생을 기점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역사가 B.C.(Before Christ), A.D.(Anno Domini)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 ▶ 예수님은 예술가가 아니셨지만, 수많은 예술가들이 그분의 삶에서 영감을 받아 인류 최고의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 ▶ 예수님은 변호사가 아니셨지만, 그분이 전하신 사랑의 법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법으로 여겨집니다.
- ▶ 예수님은 의사가 아니셨지만, 어떤 병도 고칠 수 있었던 가장 위대한 의사이셨습니다.
- ▶ 예수님은 심리학자가 아니셨지만, 모든 사람이 조언을 얻기 위해 그분께 나아왔습니다.
- ▶ 한 저명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리학 책들 속의 모든 쓸모없는 내용을 다 태워버리고 좋은 것만 남긴다 해도, 결코 성경의 산상수훈에 담긴 지혜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 ▶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으셨지만, 어떻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지 그분보다 더 깊고 따뜻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 예수님과 그분의 삶은 왜 그토록 특별할까요? 왜 그분과 비교할 만한 인물이 단 한 사람도 없을까요?

아마도 그리스도인이려면 주저 없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은, 이미 수 세기 전에 예언되었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참으로 벅차고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에서 나누었던, 메시아에 대한 성취가 이루어진 사실을 당신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님에게 333가지의 구별되는 ‘신원 식별 요소들’을 부여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지금까지 단 한 명의 거짓 메시아도 이 예언을 자기에게 해당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며(사 7:14; 마 1:23)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시며(미 5:2) 그분은 “위대한 스승”,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 이라”(사 9:6)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예언 속에서 선포된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마 11:1~6, 16:16~17; 눅:17~21; 요 4:25~26 등 참조).

또한,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 모임인 산헤드린 앞에서 심문을 받으실 때, 이런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묻는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마 26:63).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마 26:64).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사람이면서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며 그분을 정죄했기 때문입니다(요 10:33).

예수님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받았다”(마 28:18). 그리고 주님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계 22:13).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전능한 자이다”(계 1:8).

### 목격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역사학자 존 몽고메리(John Montgomer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신약 성경 문서들을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문서들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모습을 전해준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직접 예수님을 본 이들은 무엇을 증언했을까요?

침례 요한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것이다”(요 1:34). 그는 또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요 1:29). 세상의 죄를 없애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요 6:68).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도 같은 믿음을 고백했습니다(요 11:27).

도마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요 20:28)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요일 5:20). 그리고 그는 성경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게 하고 또 여러분이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요 20:31).

**로마 백부장**(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지휘한 군인)도 그분의 죽음을 지켜본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마 27:54).

**바울**은 처음에는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을 반대하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열정적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길이길이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롬 9:5). “그리스도 안에는 온갖 신적 성품이 육체적인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골 2:9). 바울의 이 말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온전히 지니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 그렇다면 역사는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Flavius Josephus)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 시기에 예수라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자였고, 진리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스승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그를 사랑했던 이들은, 총독 빌라도가 종교 지도자들의 요청에 따라 그를 십자가형에 처하게 한 뒤에도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선지자들이 오래전부터 예언한 일이었으며, 그 외에도 예수에 대해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예언했던 그대로였습니다.”

또한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Cornelius Tacitus)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본디오 빌라도 총독 치하에서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에 범죄자로 처형된 인물에게서 유래되었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신성이 이 세상에 나타났다면 그것은 예수라는 사람 안에서 나타났ся다.”

장 자크 **루소**는 이렇게 썼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삶과 죽음이 현자의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삶과 죽음은 신의 것이었다.”

유명한 동양학자이자 비평가인 **에르네스트 르낭**(Ernest Renan)은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앞으로 역사가 어떤 놀라움을 가져오든,  
예수님보다 위대한 인물은 결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 그렇다면, 사실을 직접 조사한 진지한 회의론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말했을까요?

**리워 월리스 장군**(General L. Wallace)은 한 무신론자와 기독교가 얼마나 말도 안 되

는 종교인지에 대해 한참을 이야기한 후, 기독교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책을 쓰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오랜 세월을 걸쳐 방대한 자료를 수집했지만, 연구를 거듭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 인물임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역사적 인물 그 이상의 존재이다.” 50세가 된 어느 날, 그는 생애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님과 구주가 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이 모은 자료들을 가지고 유명한 이야기 벤처를 쓰게 됩니다.

**윌리엄 램지 경**(Sir William Ramsay)은 고대 연구를 통해 명성을 얻은 고고학자이자 화학자였습니다. 그는 성경은 믿을 수 없는 책이라 확신했고, 그 진위를 가리기 위해 직접 중동으로 떠났습니다. 15년 동안 현지를 조사한 끝에, 그는 오히려 확신에 찬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왔고, 성경과 기독교 신앙을 옹호하는 여러 권의 책을 저술하게 됩니다.

영국 언론인 **프랭크 모리슨**(Frank Morison)은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신화일 뿐임을 밝히려 했지만,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것이 사실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결국 그도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런던대 철학과 학장이었던 **조드 박사**(Prof. Dr. Cyril M. Joad)는 한때 예수님을 단지 인간일 뿐이라 여기고, 죄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회의론자였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경험한 그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그 죄에 대한 설명을 찾을 수 있으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그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후 그는 예수님의 열정적인 제자가 됩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무신론자 **조반니 파피니**(Giovanni Papini) 역시 신약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한 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확신에 찬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는 결국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책까지 집필하게 됩니다.

독일의 저명한 학자 **아돌프 데이스만**(Adolf Deißmann)은 성경이 믿을 만한 책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중동 지역으로 탐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사 과정에서 마주한 사실들 앞에, 오히려 확신에 찬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고, 이후에는 신학자로서 성경을 변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의 책 동방에서 온 빛(Licht aus dem Orient)은 성경이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진실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부정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이 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52개국 500개 이상의 대학에서 3백5십만 명 이상의 교수와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조쉬 맥도웰**(Josh McDowell)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정직하게 증거를 찾아 연구한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부정한 사람을 단 한 명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는 증거는, 정직하고 선입견이 없으며 진리를 진심으로 찾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강력합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만약 누군가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면,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은 아마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 ▶ “나는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인간이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 ▶ “그분은 조금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 기적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그분은 누구보다도 더 뛰어난 인격을 가지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 ▶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르침을 주셨을 것입니다.”
- ▶ “그분의 영향력은 오래도록, 전 세계적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할 것입니다.”
- ▶ “그분은 인간 내면의 깊은 영적 갈망을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 ▶ “그분은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 ▶ “그리고 내가 그분께 간절히 도움을 구할 때, 그분은 실제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기대에 하나하나 완벽하게 부응하신 분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의 삶에 실제로 영향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증오하던 자였지만, 그는 결국 가장 위대한 선교사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겁 많은 시몬은 담대한 베드로가 되었고, 혈기가 많은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넘치는 생명과 참된 만족, 용서와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당신 삶에 있어 가장 큰 축복과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나 모두에게 꼭 필요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다음 편지에서는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나눠볼까 합니다. 그동안, 복음서에 나오는 예

수님의 이야기를 직접 읽어보는 건 어떠세요? 당신을 위한 더 많은 편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친구들과 함께 읽고 이야기해 보거나, 필요한 누군가에게 그냥 전달만 해도, 그들에게도 큰 의미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지그프리트 부흐홀츠(Siegfried Buchholz)라는 한 영업 이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존재 중 가장 특별하고도 매혹적인 분이십니다”(출처: Hörzu).

저는 당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음 깊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마음을 담아,

– 헬무트 하우바일

※ 이 편지에 사용된 내용은 조쉬 맥도웰(Josh McDowell)의 『성경에 대한 도전 – 성경의 진리를 증명하는 사실과 논거들』 (원제: Die Bibel im Test, 493쪽, CLV 출판사, 비엘레펠트)에서 출판사의 허락을 받고 인용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천: 편지 1, 3, 8 [www.steps-to-personal-revival.info](http://www.steps-to-personal-revival.info): Letters to Andrew

▶ 문의: [juheeyeon@gmail.com](mailto:juheeyeon@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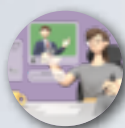
memo

# 성경통신학교

## 스마트폰 앱이 출시되었습니다.



앱스토어에 '성경통신학교'를 검색하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 e-러닝 강의

강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성경 말씀을 공부해 보세요.



### 스마트 웹북

성경통신학교를 모바일 웹북으로 공부하여 삶의 지혜를 배우세요.



### 온라인 성경 공부(Zoom)

각자 있는 곳에서 정해진 시간에 줌(Zoom)으로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 포인트가 있어요

e-러닝 강의와 스마트 웹북으로 열심히 공부하시면 포인트가 쌓입니다(추천인 포인트 있음). 삼육물과 시조사물에서 사용 가능



### 서적 신청(유료·무료)

편하게 홈페이지와 앱에서 서적을 신청하여 구도자 분들에게도 무료 서적을 보내세요.



성경통신학교

Bible Correspondence School

1670-5235

<http://www.vop.or.kr/>

